

연구논문

감성지능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절역할*

최 명 철**

서 문 교***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 III. 자료의 분석
- IV. 실증분석
- V.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가치관은 전통성과 현대성으로 측정하였고,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가치관의 조절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인천·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총 443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전통성은 조절작용을 하지 못했다. 셋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현대성은 정의 조절작용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전통성은 조절작용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대성은 정의 조절작용을 하는 등 가치관마다 조절작용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며, 이어 감성지능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한국 대학생들의 정보들과 연구결과들은 한국대학생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전통성, 현대성]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12S1A5B5A07037742).

** 주저자,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강사(oz0921@naver.com)

*** 교신저자, 웅지세무대학 조교수(zard@wat.ac.kr)

1.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三抛世代)라는 용어도 등장해 유행하고 있다. 분명 대학생들의 실력과 취업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경제구조 및 저성장의 등의 이유로 취업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되었고, 대학신입생부터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정에 한 두 자녀만 있는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며, 과도한 집안의 기대와 보살핌으로 자기감성의 통제 및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권위에 대한 순응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한국 젊은이들의 특징이다.

Goleman(1998)은 감성지능에 대해 감정을 잘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며, 인간관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앞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현상과 연결시켜 봤을 때 대학생들의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감성지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나 배경,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한 개인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가 있다(Litt, 1988).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과업을 수행 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Owen & Forman, 1988), 취업과 본인 성장에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지능의 정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신념으로 지쳐있는 젊은 세대에게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및 자기주장의 확실한 전달과 표현 등으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맞물리는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유교권이면서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을 정도로 유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었고, 사서삼경과 삼강오륜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해왔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급속한 사회변동, 그리고 기술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전은 전통적 유교권인 한국에도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유교적 이념을 배경으로 한 가치관을 전통성이라 한다면, 20세기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사회가 현대화하면서 등장한 가치관을 현대성이라 명명할 수 있다(Farh et al, 1997). 이 두 가치관은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히 대조적인 양극단의 개념은 아니며 한 사람의 의식 속에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한 지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가치관인 전통성과 현대성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기초자료와 더불어 대학생의 능력개발 및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사고와 행동 유도 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Salovey & Meyer, 1990). 감성지능은 일반적인 지능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의 동기부여(motiv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증연구에서 밝혀졌다. Cooper & Sawaf(1997)는 개인의 감성이 풍부하고 높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했고, Wong & Law(2002)는 홍콩 정부의 중간 관리자와 홍콩 대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으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Dulewicz & Higgs(2000)는 감성지능의 정의를 감성을 인지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그것을 유지하고 동기부여해 타인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 감성지능과 동기부여는 상호 연관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동기부여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이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Wood & Bandura, 1988), Maddux(1995)는 자신이 처한 행동이나 상황적 요소가 피할 수 없는 경우나 도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의 에너지를 투입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자기효능감을 정의했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 상황에 맞추어 학습자 스스로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상태라 할 수 있다(Schunk, 1995). 정리하면, 동기부여가 높은 상태가 된다면 자기효능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개념들을 응용해 감성지능 중 Wong & Law(2002)이 제시한 감성지능 척도를 이용해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Wong & Law(2002)는 감성지능의 척도를 자기감성인식(self-emotion appraisal, SEA), 타인감성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OEA), 감성활용(use of emotion, UOE), 감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 ROE)의 4가지 측면을 제시했는데, 이는 Bandura(1994)가 자기효능감의 형성 원인으로 제시한 실제경험(enactive attain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states)와 매우 관련이 있다.

〈표 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감성지능 (Wong & Law, 2002)		자기효능감 (Bandura, 1994)	
자기감성인식	자신 감정상태 인식 정도	실제경험	경험을 통한 성공
타인감성인식	타인 감정상태 인식 정도	대리경험	타인을 통한 성공
감성활용	관계 지속과 감성 활용 정도	언어적 설득	칭찬, 격려를 통한 성공
감성조절	기분통제와 판단 조절 능력	정서적 상태	충동과 기분을 통제

우선, 실제경험은 본인이 실제로 경험을 해 봤는지의 정도로 경험을 통한 성공 유무는 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실패는 낮춰준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감성인식은 이러한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경험 역시 성공을 거둔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타인의 감성 정도를 이해하고 그들을 다룰 수 있다면 성공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언어적 설득은 칭찬, 격려에 의해서도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타인의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성공의 기대치가 높아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흥분을 하게 된다면 효능감이 제대로 인지되거나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동과 기분을 통제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성 조절 능력이 있다면 효능감이 높아지거나 좀 더 분명하게 인지되어질 것이다.

정리하면, Wong & Law(2002)의 감성지능 연구와 Bandura(1994)의 자기효능감의 연구가 관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성지능의 하위 요소들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실증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Yukl(2002)은 감성지능이 자기 감시성향(self-monitoring) 및 자기 확신, 성장 추구와 같은 특성과 결합해서 나타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김경숙 & 박화운(2012)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통해 감성 조절($\beta=.313$, $p<0.01$)과 감성 활용($\beta=.184$, $p<0.05$) 그리고 감성역량 요소 중 관계 관리($\beta=.107$, $p<0.05$)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 송정수(2010)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98$, $p<0.01$), 조혜진(2012)은 감성지능의 감정인식 및 표현($\beta=.24$, $p<0.01$), 감정이입($\beta=.23$, $p<0.01$), 감정의 사고촉진($\beta=.37$, $p<0.01$), 감정조절 요인($\beta=.17$, $p<0.05$)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관계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성과 현대성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가치는 개인의 행동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각자의 신념이나 인생에 있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논하는 것과 같다(Gibson & Mitchell, 1981). 그

리고 특정 개인의 행동 방식 유형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믿음의 형태이다(Nevil & Kruse, 1996).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충분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도는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Yang et al.(1989)에 의해 개념화되고 증명된 전통성(traditionality)과 현대성(modernity)은 상반된 결과의 개념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문화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국 국민들은 엄격한 형식이나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한다. 이는 민족 이름인 타이족의 ‘타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처럼 태국 국민들의 문화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 형태는 예로부터 국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사회내의 대인 관계에서는 위계적 신분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Yang et al.(1989)의 연구에서도 대만 역시 문화적 지향점이 국가가 아닌 개인마다 분리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결국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개념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 개념의 문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며, 개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문화 가치라 볼 수 있다.

Farh et al.(1997)에 따르면 전통성(traditionality)의 문화 속에서는 권위에 대한 존경(respect for authority), 효심(filial piety), 조상 숭배(ancestor worship), 남성우월 사상(male-domination), 운명론(fatalism)과 같은 가치관들이 강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주의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륜(五倫)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표현되는 오륜(WuLun: 五倫)에서는 유대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은 사회적 특징이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특히 오륜은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개인의 역할의 바뀜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역할 변경은 대인관계를 강화시킨다(Yang, 1993). 예를 들어 붕우유신의 경우 교우관계에서도 계급 패턴을 만들어 내면서 시스템화 시키고 있고, 장유유서와 같이 상위의 구성원과 하위의 구성원의 구분을 통해 상위 구성원의 특권과 권위는 하위 구성원의 존경과 존중

으로 비롯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오류에서는 역할 규범이 행위자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의 정도가 커지지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요구 사항과 제약 사항으로 인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전통성의 환경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공정하게 대우 받았다고 느끼는 것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그들의 인지된 역할에 따라 행동을 보이게 된다(Farh et al., 1997).

자기효능감은 일정한 활동영역에서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믿음이다(Schunk, 1985). 하지만 높은 전통성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위치에 따라 권위에 순종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통성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전통성의 가치는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부(-)로 조절할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가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면서 가치관과 태도의 뿐만 아니라 관습의 패턴에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대안이 현대성(modernity)이다(Inkeles & Smith, 1974).

현대성은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 오픈마인드(open-mindedness), 낙관주의와 적극성(optimism and assertiveness), 정서적 쾌락주의(affective hedonism), 성적 평등(sexual equality), 그리고 자립성(self-reliance)의 측면에서 한 사회를 설명했다(Yang et al., 1989). 현대 사회에서는 규정의 원칙에 근거한 수단적 교환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의 공헌을 기반으로 한 보상을 받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이나 나이 위치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모든 사람이 특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데 이 역시 현대성의 기반을 둔 문화 가치이다.

결국 현대성의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대해 개방적 태도, 미래 지향적 태도,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 태세, 운명의 수동적 수용 불가,

전통적 권위 의존의 경향 약화와 같은 개인적 현대성 증후군(individual modernity syndrome)을 보이게 된다(Inkeles & Smith, 1974).

그리고 Inkeles(1999)에 의하면 현대성 가치에 근거한 사람들은 의견 상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의견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오픈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다. 즉, 권위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의견에 대한 이유와 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성격특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는 성향은 상황이나 환경의 제약이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거나 기존의 권위나 범례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감성의 조절 및 활용은 더욱 쉽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성 가치는 감성지능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현대성의 가치는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다.

III.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해 요인의 추출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각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 확보를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표본의 설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자료를 서울/인천/경기도/충청도에 소재한 대학교들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의 총 부수는 48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별 성별 분포는 남성 206명(46.7%), 여성 234명(53.1%), 무응답 3명(0.2%)이며, 연령 분포는 20세에서 23세 277명(62.6%), 24세에서 26세 71명(16.0%), 27세에서 29세 58명(13.0%), 30세 이상 16명(3.6%), 무응답 21명(4.8%)로 나타났다. 고향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지역으로 서울 116명(26.2%), 인천 42명(9.5%), 경기도 140명(31.6%), 대전 10명(2.3%), 충북 8명(1.8%) 충남 35명(7.9%), 강원도 4명(0.9%), 부산 5명(1.1%), 경북 8명(1.8%), 경남 4명(0.9%), 울산 4명(0.9%), 광주 2명(0.4%), 전북 10명(2.3%), 전남 5명(1.1%), 제주도 2명(0.4%) 대구 5명(1.1%), 미응답 43명(9.8%)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인구통계자료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설문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1)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은 Gross(1998)의 감성지능의 개념을 척도화한 Wong & Law(2002)의 감성지능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자기감성인식 4문항, 타인감성인식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성조절 4문항으로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인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Jones(1986)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은 총 7문항이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전통성과 현대성은 Yang et al.(1989)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Farh et al.(1997)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 전통성과 현대성 측정 문항은 각각 5문항이나, 현대성 측정문항 중 국내의 정서와 맞지 않은 한 개 문항을

삭제해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IV. 실증 분석

1.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이면 구성개념들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Hair et al., 1998),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적재 값이 0.5 이상의 요인 적재치를 보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 항목들은 모두 요인별로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구분	1	2	3	4	5	6	7	신뢰도
자기효능감 3	.815	.095	.131	.015	.173	.057	.073	.818
자기효능감 2	.730	.183	.093	-.083	.085	.040	.076	
자기효능감 1	.666	.080	.108	.225	.011	.034	.034	
자기효능감 4	.659	.100	.089	.101	.244	.054	.056	
자기효능감 6	.555	.041	.173	-.277	.164	.187	.027	
자기효능감 7	.531	.010	.073	-.187	.241	.139	.105	
자기효능감 5	.504	.105	.061	.224	.380	.104	.195	
감성조절 4	.046	.867	.073	.034	.123	.020	.040	.886
감성조절 2	.146	.854	.173	.069	.110	-.054	-.029	
감성조절 3	.113	.842	.053	.078	.085	.039	.091	
감성조절 1	.176	.786	.103	.068	.201	.038	-.022	
자기감성이해 2	.077	.146	.871	.094	.135	.113	.017	.852
자기감성이해 3	.110	.139	.848	.048	.138	.168	.026	
자기감성이해 1	.160	.101	.742	.101	.106	.110	.113	
자기감성이해 4	.207	.042	.639	-.040	.223	.222	-.088	
전통성 3	.016	.074	-.015	.800	.021	-.024	.008	.771

전통성 1	.137	.167	.020	.749	-.022	-.038	-.019	
전통성 2	.063	.079	.003	.746	-.050	.008	.048	
전통성 4	-.124	.025	.031	.742	.060	-.047	.032	
전통성 5	-.039	-.075	.091	.500	.099	-.011	-.016	
감성활용 3	.188	.070	.144	.022	.814	.067	-.042	.820
감성활용 4	.225	.130	.130	.036	.759	.067	.032	
감성활용 2	.255	.186	.062	.088	.713	.074	-.041	
감성활용 1	.121	.135	.198	-.019	.696	.028	.045	
타인감정이해 3	.156	-.001	.331	-.061	.044	.798	.024	.688
타인감정이해 4	.160	-.016	.299	-.109	.143	.763	.075	
타인감정이해 2	.001	.040	-.039	.048	.050	.717	-.053	
타인감정이해 1	.254	.002	.433	-.087	.025	.561	.045	
현대성 1	-.044	-.097	.022	-.081	.098	.025	.677	.680
현대성 3	.143	.090	-.002	-.007	-.062	-.046	.673	
현대성 2	.088	-.015	.080	.011	.052	.044	.668	
현대성 4	.099	.089	-.031	.117	-.064	.000	.615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들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자기감성이해 0.852, 타인감성이해 0.688, 감성활용 0.820, 감성조절 0.886, 자기효능감 0.818, 전통성 0.771, 현대성 0.680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가졌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의 변수 자기감성이해($r=.391$), 타인감성이해($r=.318$), 감성활용($r=.318$), 감성조절($r=.519$)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현대성($r=.202$)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설 3에 관련된 내용 역시 뒷받침 해주고 있다.

〈표 3〉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자기감성이해	3.57	.708	1						
2. 타인감성이해	3.79	.772	.457**	1					
3. 감성활용	3.50	.717	.388**	.228**	1				
4. 감성조절	3.38	.835	.290**	.077	.341	1			
5. 전통성	2.58	.756	.094*	-.064	.073	.160**	1		
6. 현대성	3.44	.571	.083	.049	.039	.067	.012	1	
7. 자기효능감	3.47	.579	.391**	.318**	.519**	.325**	.047	.202**	1

N=443, *p<0.05, **p<0.01

3. 가설검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감성지능의 하위차원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 1을 만들었다. 모델1은 감성지능의 하위차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로 검증 결과 자기감성이해($\beta=.119$, $p<.05$), 타인감성이해($\beta=.176$, $p<.01$), 감성활용($\beta=.384$, $p<.01$), 감성조절($\beta=.123$, $p<.01$)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 3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모델2~ 모델7)을 만들었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3단계에 걸쳐 투입해 R square 값의 변화량과 3단계 상호작용항 베타 값의 유의 수준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했다(Baron & Kenny, 198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 상호작용항이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 변수에서 평균을 차감해 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고(Aiken & West, 1991), 그 결과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우선 전통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2, 3, 4를 만들었으며 모델 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1단계, 모델 3은 전통성의 조절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2단계, 모델 4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3단계이다. 검증결과 R square 값이 모델 2는 .334, 모델 3은 .335, 모델 4는 .340로 점점 증가하였으나, 모델 4의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전통성의 조절효

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모델7
성별	-.078*	-.080*	-.087**	-.091**	-.078*	-.058	-.059
나이	.010	.019	.023	.016	.010	.009	.015
자기감성이해	.119**	.118**	.121**	.138***	.119**	.112**	.081*
타인감성이해	.176***	.173***	.170***	.163***	.176***	.172***	.173***
감성활용	.384***	.382***	.382***	.383***	.384***	.385***	.364***
감성조절	.123***	.119***	.121***	.111*	.123***	.117**	.124**
전통성			-.032	-.032			
자기감성이해X전통성				.097			
타인감성이해X전통성				-.043			
감성활용X전통성				.019			
감성조절X전통성				-.045			
현대성					.175***		.176***
자기감성이해X현대성							.092*
타인감성이해X전통성							.085*
감성활용X전통성							.000
감성조절X전통성							-.017
F value	35.656***	34.374***	29.514***	19.031***	35.656***	33.513***	22.809***
R square	.339	.334	.335	.340	.339	.361	.378
R square change			.001	.005		.022	.018

*p<0.1, **p<0.05, ***p<0.01

다음으로 현대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5, 6, 7를 만들었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델 5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1단계, 모델 6은 현대성과 조절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2단계, 모델 7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3단계이다. 검증결과 R square 값이 모델 5는 .339, 모델 6은 .361, 모델 7은 .378로 증가하였고, 모델 7의 상호작용항이 자기감성이해($\beta=.092$, $p<0.1$)와 타인감성이해($\beta=.085$, $p<0.1$)가 다소 낮은 유의수준 하에서 현대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전통성과 현대성이라는 가치관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연구결과로 봤을 때 유가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감성을 이해, 활용,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학점이나 어학실력 등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감성에 대한 이해와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성의 개발과 훈련은 취업과 진로 등으로 스트레스에 억눌렸다가 한순간에 폭발할 가능성을 줄여주고 순차적으로 자신 능력에 대한 신념도 증가된다는 긍정적 흐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둘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대하여 전통성은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성은 오륜 등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이 만들어져서, 같은 동북아이면서 유교문화권인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받아지리라는 가정 위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성의 조절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상관분석에서도 전통성은 감성지능의 일부 척도와 상관관계에 있고, 자기효능감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오륜 그리고 전통적 유대관계 등은 관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기존의 한국인들보다 정신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대하여 현대성은 정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SNS의 활용과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과 같은 의견표현의 자유와 남녀평등에 인식 확대에 의한 페미니즘의 영향력 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Goleman(1995)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감성지능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현대성의 성향은 해당 연구결

과를 재검증해주고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연관이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전통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다. 만일 향후 연구에서 전통성을 연령별로 측정한다면 각 연령대별로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특히 40-5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상관 및 회귀분석 등에서 어느 정도 유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세대 간의 가치관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과거 한국인들의 의식세계의 큰 영향을 차지하던 유교 및 전통적 유대관계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생 이외의 대상을 측정할 때는 연령대의 구분을 통해 가치관의 인식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성과 현대성의 설문문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설문문항은 Farh et al.(1997)의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내용 자체가 대학생들이 답하기에는 약간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대학생의 정서나 상황에 맞게 설문 문항을 수정해 측정을 한다면, 현 연구결과 보다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경숙·박화윤.(2012).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이 감성역량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1:289-308.
- 조혜진.(2012). 문화예술교육 성인학습자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송정수.(2010).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6(1):17-25.
- Akerjordet, K., & Severinson, E. (2008). Emotionally intelligent nurse leadership: A literature review study.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6(5): 565-57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s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94). Self-efficacy. In V. S. Ramachau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New York: Academic Press, 71-81.
- Cooper, R. K. & Sawaf, A. (1997). *Emotional intelligence in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Executive EQ*, New York.
- Dulewicz, S.V.D. & Higgs, M. J. (2000). Emotional Intelligence: a review an evaluation stud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5(4): 341-368.
- Farh, J. L. & Earley, P. C. and Lin, S. C. (1997). Impetus for action: A cultural analysis of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Chinese socie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3): 421-444.
-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fifth editi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_____.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Bloomsbury Publishing, London.
- Gibson, R. L. & Mitchell. M. H. (1981). *Introduction to Guidance*. Macmillan Publishing.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ed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 - 299.
- Inkeles, A. (1999). A model of the modern man. In M. Waters (Ed.), *Modernity: Critical concepts Vol.2*. 94-109. New York, NY.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Inkeles, A., & D. H.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nes, G. R. (1986). Socialization tactics, self-efficacy, and newcomers' adjustments to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 262-279.
- Litt, M. D. (1988).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49-160.
- Maddux, J. E. (1995).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NY: Plenum Press.
- Nevill, DD, & Kruse, SJ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Values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4): 383-397.

- Owen, S. V., & Froman, R. D. (1988). Development of the Colleg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Paper presenting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New Orleans, LA.
- Schunk, D. H. (1985). Participation in goal setting: Effects on self-efficacy and skills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9(3): 307-317.
- _____. (1995). Self-efficacy and education and instruction.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Wood, R. E., & Bandura, A. (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07-415.
- _____.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 361-384.
-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 - .274.
- Yang, Kuo-Shu. (1993). Chinese social orientation: An integrative analysis. In L. Y. Psychotherapy for the Chinese: Selected Paper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Yang, Kuo-Shu & An-Bang Yu, and M. H. Yeh. (1989). Chinese individual modernity and traditionality: Construct definition and measurement (in Chinese). *Proceedings of the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n Chinese Psychology and Behavior*, 2: 87-354.
- Yukl, G. (2002). *Leadership in Organizations*. (5th ed.).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부록〉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전통성, 현대성 설문

감성지능 설문

1. 나는 대부분 왜 특정한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2. 나는 내가 느끼는 기분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
3.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4. 나는 항상 나 자신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5. 나는 항상 내 친구들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감정을 안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관찰하는데 뛰어난 편이다.
7.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느낌과 감정을 잘 감지한다.
8.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9. 나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 나는 나 자신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격려한다.
11.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 시키는 사람이다.
12. 나는 항상 내 자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13. 나는 내 노여움을 통제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4.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15. 나는 화가 나더라도 항상 빠르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16.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자기효능감 설문

1. 내게 주어진 업무는 모두 내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2. 나는 조직의 업무에 적응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담당할 업무에 직무수행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내 능력과 지식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대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낀다.
6. 나의 과거 경험과 성취는 앞으로 업무를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도전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성 설문

1. 정부 지도자는 가족의 가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2. 실수를 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3. 결혼 전 여성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하고 결혼 후에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4.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는 그들의 리더에게 누가 옳은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부모에 의해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에 의해서도 존경받아야 한다.

현대성 설문

1. 만일 선생님이 실수를 했다면, 학생들은 이성적으로 그와 언쟁을 할 수 있다.
2.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할 권리가 있다.
3. 진보된 학습 또는 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의 집 또는 가정을 떠나도 좋다.
4. TV 프로그램의 성적 장면이 필수적인 각본의 부분이라면 검열되지 않아야 한다.